

시론

호남의 위기, 사람을 키우지 않는 데 있다



김미남 前 청와대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세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시작된 미국-이란 간 충돌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급리 정책 변화, 환율 변동성 확대, 공급망 재편까지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또한 대만 문제와 한반도 주변의 미·중·일·러 4대 강국들의 각축전 속에 북핵 문제가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는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물론 자영업자의 몰락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 정치는 여야 간 정쟁은 물론 당의 권력 구조를 둘러싼 계파 간 치열한 갈등으로 반복이 이어지고 있으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호남 정치 환경도 별반 차이가 없다. 지역 내 갈등과 정치적 한계, 변화와 현상은 수도권 권을 제외한 지방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길러낸 호남은 점차 지역 특유의 역동성마저 잃어가고 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자기 위안'과 함

께 이 지역의 인사들이 대거 정부와 정치권에 진출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열망과 간절함, 지역민들의 '연대의식'이 점차 약화된 측면도 있다.

과거는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호남은 사람을 키우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위태로워 보이는 국내 경제와 정치를 극복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호남은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전직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호남 출신도 아닌 영남 출신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을 키워낸 저력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지역 출신 정치인은 많지만 큰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지역의 다양한 계층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도 등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역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은 다르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흐름을 영남지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영남은 국가 집권의 주체 세력이 되면서 행정의 노하우는 물론 중앙 정부의 주요 요직에 포진해 왔다. 흔히 영남 출신은 학벌과 지연으로 묶여 결속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일반적이다. 중앙 정부 공직자들 사이에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는 말도 나온다. 영남 지역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는 핵심 사안들도 타 지역에 비해 사전 준비가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오랜 집권 과정에서 형성된 인맥과 축적된 행정 경험의 결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호남은 어떻게? 호남 출신은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권과 정부 요직에 많지

않다. 기업과 공직사회 내에서도 호남 출신 간 결속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듣는 경우는 드물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는 핵심 사안들도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공적 행정 영역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국회나 청와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호남 입장에서는 중앙 정치권과 정부 내 인맥이 빈약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어렵다.

지방 공직사회에서는 고시 출신을 빗대어 '국장이 직업'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기존 사·도의 경우 3급(부이사관) 승진 이후 장기간 국장으로 재직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와의 인사 교류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며 지방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단기간 내 개선될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비단 고시 출신 간부 개인의 성향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인사 시스템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 공무원들이 중앙 정부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에게 중앙 정부 근무 경험은 지자체의 행정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7월1일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전남광주특별자치도'와 오랜 역사를 함께 해 온 '전북특별자치도'가 호남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앞장서 주길 소망한다.

社說

전남광주특별시장 민형배 민주당 후보의 남은 과제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이 최종 확정됐다. 여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급인 상황이다. 9부 능선을 넘었다. '사실상 본선'으로 불린 경선이었다. 민 후보는 광주권과 전남 동부, 서부권 3개 권역 청사진을 더 구체화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 후보는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생활 현장 기반 정치를 내세워 민심과 당심의 선택을 받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민선 5·6기 광산구청장과 21·22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 활동과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이력도 있다. 풍부한 국정 경험과 지역밀착형 행정 능력이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민 후보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정부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또 "침체된 산업을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해서 경쟁 진영을 향해

연대와 화합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 함께 손잡고 대도약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40여 일 앞치락뒤치락 대선투쟁을 통해 주고받은 실천과 공방의 후유증을 속히 극복해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 유치, 투자공사 설립 등 정책의 현실성을 두고 포퓰리즘이 주되고, 후보 단일화 '합종연횡' 국면에선 원색적 비난으로 치달았다. 과열·혼탁 양상으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40년 만의 광역 행정 대통합이다. 전국 첫 사례다. 어느 한 곳이라도 한 치의 소외됨 없이 균형 발전을 완수해야 하는 그 무게가 적지 않다. 정부가 4년 간 약속한 20조원 재정 지원금을 지역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만들어야 한다. 민 후보는 시민주권, 성장동력, 균형통합, 기본사회, 녹색 도시를 5대 원칙으로 설정한 바 있다. 경선 기간 중 다른 후보들과 깊어진 갈등부터 원만하게 봉합·치유하고 '원팀'을 구성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분선 구도가 짜여졌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더 낮게, 더 치열하게 뛰며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제대로 해내겠다는 민 후보의 앞날을 지역민들이 특히 주시하고 있다.

9월 여수 세계섬박람회 '제2의 잼버리'로 불려선 안돼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5일 개막한다. 하지만 미흡한 준비 상황에 나라 망신당 당하고 중단된 '제2의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라는 별칭으로 불리우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SNS상에서 '충주맨'으로 향한 김선태씨가 제작한 홍보 영상에서 허허벌판인 주행사장, 폐어가 방치된 모습 등이 전제 논란을 키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다. 5개월도 남지 않는 가운데 인프라 조성 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을 감안하면 전적으로 지방정부에만 맡겨두기가 만만치 않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지시한 것이다. 전남도, 여수시, 조직위원회가 반색했다. 그도 그럴 것이 투입될 전체 예산 규모는 700억원이지만 국비는 64억원에 불과하고, 전남도가 154억, 여수시가 365억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섬을 주제로 삼은 박람회론 최조다. 현재 27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했으며 국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주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은 공정률 70% 수준으로 일정에 맞춰 순조롭다. 기획, 상설무대공연,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섬도시대회와 섬포럼 같은 국제 학술회의도 본격 준비에 들어가 구체화되고 있다. 박람회의 큰 틀이 점차 윤곽을 갖추면서 조직위는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며 흥행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섬의 가치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공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글로벌 이벤트다. 여수 세계섬박람회 주요 시설 공정은 7월까지 완료한 뒤 8월 시범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입장권 판매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며, 분위기 확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내부 콘텐츠까지 하나하나 촘촘하게 점검해야 한다. 일각의 우려는 기우로 끝날 것이고 전남광주특별자치시를 빛낼 아주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돼야 한다.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다.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총력을 기울여 이길 바란다.

의료칼럼

혈액 내 산소가 부족해지는 '빈혈'



곽희호 목포천연항병원원장

빈혈은 혈액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조직에 저산소증이 발생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쉽게 말하자면 적혈구의 생산량보다 적혈구의 소실량이 더 많다. 빈혈의 유형은 대략 10% 내외이며 특히 여성이 월경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4~5배 많은 경향을 보인다.

빈혈은 원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철결핍성 빈혈, 혈구세포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B12나 엽산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거대적아구성 빈혈, 조혈줄기세포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골수이형성 증후군 등이 있다. 이에 가장 흔한 철 결핍성 빈혈에 대해 살펴본다.

빈혈의 증상은 복잡다단해 증상만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조직 내 산소가 결핍돼 뇌에서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나고 골격근에서는 무기력감을 보인다. 산소 결핍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호흡수가 증가해 숨이 차기도 하고 심박수 또한 증가해 가슴 두근거림이나 빈맥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적혈구량의 감소로 말초혈관이 수축돼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에 있는 안검결막이 창백해진다. 여성에서는 월경지연이나 무월경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진단검사는 혈액검사가 필수이며 혈액소 농도(Hb)와 적혈구(Hct) 용적률을 측정한다. 혈액소 농도는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다. 적혈구 용적률은 혈액 중에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쉽게 비유하면 혈액소 농도는 트랙에 실려있는 짐의 양을, 적혈구 용적률은 도로 위를 주행하는 트랙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성인을 기준으로 남성은 Hb(13g/dL), Hct(39%) 이고, 여성은 Hb(12g/dL), Hct(39%) 일 때 빈혈로 진단한다.

철 결핍성 빈혈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수치가 요구된다. 평균 적혈구 용적을 의미하며 적혈구 1개의 크기를 나타내는 MCV, 평균 적혈구 헤모글로빈 농도를 의미하는 MCHC와 체내 저장된 철의 양을 가장 잘 반영하는 페리틴(Ferritin)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빈혈의 치료는 생활관리와 약물 및 한약이

있다. 약물은 철분제제의 복용이 가장 흔하다. 철분제제는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 녹차, 우유 등을 피하고 레몬, 오렌지 등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약은 빈혈에 동반되는 증상을 개선해 주며 혈류순환을 촉진해 근본적으로 빈혈을 예방해주는 효능을 가진다. 몸이 차가우며 권태감을 동반한 빈혈에는 당귀작약산(當歸芍藥散)을, 빈혈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불면을 보이는 경우에는 귀비탕(歸脾湯)을, 소화력을 개선해 빈혈을 예방하려는 경우에는 인삼양영탕(人蔘養榮湯)을 주로 처방한다. 물론 증상이 다양하여 개인의 체질에 맞는 처방이 중요하다.

생활관리로는 식이 및 운동요법이 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간,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 C와 B12 엽산 같은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운동요법은 중증 빈혈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필수이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산소 전달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가벼운 산책이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권장된다.

빈혈이 흔하다고 해서 무심코 지나치기보다는 혈액의 기능에 피로감이 생긴 상태로 인식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길 바란다.

독자투고

설레는 봄꽃 나들이 '안전' 주의 요구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전국 곳곳이 꽃구경에 나선 나들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달래려 떠나려는 여행은 즐겁지만, 이 시기 도로 위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수칙이 있다.

첫째로 불쾌감 '춘곤증'을 경계해야 한다. 따뜻한 봄 햇살과 식후에 몰려오는 식곤증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졸음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치사율이 더 높다는 통

계도 있다. 운전 중 조금이라도 졸음이 쏟아진다면 무리하지 말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15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로 '창밖 풍경'보다 '전방 주시'가 우선이다. 만개한 꽃구경에 마음이 팔려 주위 경관을 살피다 전방 상황을 놓치는 경우가 잦다. 아름다운 풍경은 반드시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한 뒤 감상해야 한다.

또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봄철에는 자전거나 이륜차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추월 시 충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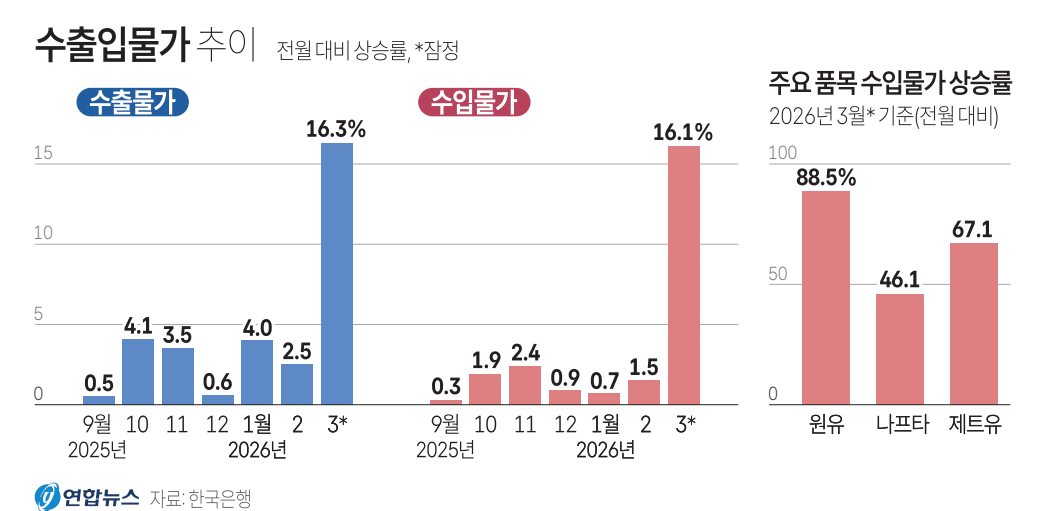
측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축제장이나 행사장 주변에서 '분위기에 취해 딱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꽃잎은 지더라도 내년 봄에 다시 피어나지만, 사고로 잃은 생명은 두 번 다시 피어날 수 없다.

조금 늦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가 뒷받침될 때, 우리의 봄꽃 나들이도 비로소 완벽하게 전개할 것이다. <윤수경·장흥경찰서 경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지난달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28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03.38로, 2월(145.88)보다 16.1% 올랐다. 상승률은 198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오름세는 작년 7월 이후 9개월째 이어졌다. 품목별로는 특히 원유 상승률의 경우 원화 기준 원유 품목 지수가 1985년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3%)은 1차 오일쇼크(석유파동) 당시인 1974년 1월(88.3%) 이후 5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3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49.50)보다 16.3% 높은 173.88으로 집계됐다. 역시 9개월째 상승세일 뿐 아니라 1988년 1월(232%)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로권 15,000원 1부 800원